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7003.74 (+32.39)		893.29 (-1.00)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937 (-0.072)		1344.15 (-6.45)

반도체 투톱, 영업익 180조 잭팟 생산시설 등 미래 성장에 재투입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07조
SK하이닉스, 28% 증가한 77조
양사, 국내 중장기 투자 3200조
생산시설 대규모 확충 등 본격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180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지만 늘어난 이익만큼 투자해야 할 곳도 빠르게 늘고 있다. 양사가 계획한 국내 반도체 중장기 투자만 총 3200조원에 달한다. 이에 양사는 실적 개선으로 확보할 현금을 생산시설 확충에 투입하며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06조9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89조5000억원보다 약 19% 늘어난 규모다. 시장 전망대로라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선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77조 2214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2분기 60조 5426억원보다 약 28% 증가한 수준이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합치면 184조 1614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D램 가격도 오르고 있다. 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위)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 모습. /각사

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에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HBM은 일반 D램보다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만큼 공급을 늘리려면 생산시설 확충

이 뒤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메모리 호황으로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향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해커 표적’ 은행… 보안 취약점 4777개

20개 은행, 수년간 481회 모의해킹
보이스 피싱 등 2차피해 우려
“시스템 중단 등 취약점 보완 어려워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고객정보 보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국내 은행에서 발견된 일부 보안 취약점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해킹으로 고객 계좌에서 자금이 탈취되는 등의 직접적인 금융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여러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만큼 계좌 탈취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 481차례 모의해킹서 취약점 4777개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81회 모의 해킹을 진행해

4777개의 유요 취약점을 발견했다.

모의해킹(침투테스트)은 실제 해커와 동일한 공격 기법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에 침투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자체 보안 인력뿐 아니라 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 등 외부 전문인력과 연계해 매년 모의 해킹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AI 활용 확산으로 취약점 발굴의 양과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내 은행 20곳은 지난 2024년 107회의 모의해킹을 실시해 1071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금융원 측은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려면 시스템 중단이나 전면 교체가 필요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안 전까지 보안장비 차단 규칙 등록이나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래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사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패치만으로 취약점

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일부 취약점은 수십년간 쌓아온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당시 담당자가 퇴직해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술적 가능성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악한 고리’ 노린 AI 해킹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연쇄 해킹을 계기로 드러난 금융권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진화하는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을 전수 점검하고,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전 금융권에 지시했다. 대출모집인이나 위탁업체 등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가 조화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의 누락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3면에 계속〉/이유리 기자 yul115@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韓 GDP 2.4% 올랐지만 ‘고용 없는 성장’

상반기 OECD 중 5위·G20 중 3위
2분기 고용률 69.8%, 회복세 꺾여

우리나라가 성장을 경쟁에서 실로 오랜만에 궤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중간 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는 3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세라는 우려도 나온다. OECD 38개국의 고용률 평균은 올해 2분기에도 우상향 흐름을 지속한 반면, 한국의 해당 수치는 5개 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5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1분기(1.8%)와 2분기(0.6%) 경제성장률을 합산한 수치가 2.4%에 달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0.4+0.6=1.0%)을 크게 웃돈다. 작년 상반기 대비는 아니지만 단순 합계 기준으로 한국은 아일랜드와 함께 공동 5위다.

미국은 1, 2분기 합산 1.2%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또 스웨덴(1.6%)과 튀르키예(1.4%), 스페인(1.3%), 뉴질랜드·멕시코·영국·포르투갈(1.1%) 등이 1%대에 자리했다. 네덜란드·일본(0.9%)과 캐

나다(0.8%), 독일·호주(0.7%), 이탈리아(0.5%), 체코(0.3%), 벨기에(0.2%), 프랑스(-0.2%) 등은 1%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 위로는 이스라엘(3.1%)과 슬로베니아(2.8%), 덴마크(2.6%), 스위스(2.5%) 등 네 곳뿐이었다.

G20 중에서도 인도(3.9%)와 인도네시아(2.6%)만이 한국에 앞섰다. 한국에 이어 중국(2.2%)이 4위에 올랐고 브라질이 1.6%, 남아공이 0.2%, 아르헨티나가 0.1%, 사우디아라비아가 -6.2%를 기록했다.

OECD의 다른 통계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 왔다. 2023년 2분기 70.0%에 도달한 뒤 2024년 2분기에 70.2%, 2025년 2분기에 70.3%까지 올랐다. 2026년 2분기엔 사상 최고인 70.4%를 찍었다.

한국에서도 고용 회복세 추이가 나타나지만 올해 다시 꺾였다. 최신 집계인 올해 2분기 기준 고용률 69.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69.7%) 이후 5개 분기 사이 가장 낮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여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에 “재정비·재점검” 한목소리
▲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조사일 뿐…정상적 보유한 분들은 불이익 없어” /사진 뉴스스

▲ 국힘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李 규제 만능주의가 초래”
▲ 안철수 “군사분계선 이어 NLL까지…정부, 안보 경계선 후퇴시켜”

▲ 29일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6~19일 사전신청 접수
▲ 興 “조희대, 국감장 출석해 소명하라”…당 일각선 탄핵 가능성 거론도